

진안군, 행정조직개편 추진

농촌경제국 신설·산업환경국→안전환경국 변경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 위해

진안군은 민선7기 제50대 군수 취임 시 군민과 약속했던 농업관련 국 신설 공약 이행과 변화하는 대내외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군의 각종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큰 틀은 농촌경제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업환경국을 안전환경국으로 변경하며 본청에 여성가족과, 농축산유통과를 신설하는 대신 시설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도과로 변경하여 안전환경국 소속으로 두는 안으로 기존의 2국 1실 12과 1의회 2사업소 2직속 1읍10면 132팀체제를 3국 1실 15과 1의회 2직속 1읍10면 139팀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 소속 소관부서

로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농촌경제국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안전환경국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로 조정했다.

신설되는 팀으로는 아동청소년팀(여성가족과), 인력지원팀(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농촌활력과), 산림치유팀(산림과), 개발행위팀(건설교통과), 환경관리팀(환경과), 상수도관리팀(상하수도과), 의정팀(의회사무과), 의료관리팀·치매안심팀(보건소)이며 통합되는 팀은 감사법무(감사+법무규제), 관광시설(관광시설+관광지원), 보건행정(보건행정+아토피관방)으로 7팀이 증가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은 총 23명이 증가하며 신설에 따른 증원 9명(국장 1, 과장 1, 팀장 7)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감염병 등 기준인건비 승인인력 9명, 산림치유·환경·상수도 등 현안 수요로 인한 5명을 증원하게 된다.

전군성 군수는 "이번 조직개편은 복지, 안전, 환경, 보건 분야를 강화하고 농촌경제국을 중심으로 농축산, 산림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개편한 조직을 토대로 5대 국정지표(풍요로운 지역경제, 차별 없는 맞춤형지, 미래희망 인재육성, 치유힐링 명품관광, 공감하는 소통행정) 달성을 위한 군민을 위한 국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15일 장수 5일장을 맞아 장수군수 및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함께 지켜요”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른 홍보 캠페인 펼쳐

장수군은 15일 장수 5일장을 맞아 장수군수 및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은 장수읍 로터리와 장수시장 등 일원에서 KF94마스크와 각종 방한용품, 안전신문고 예코백 등을 배부하며 코로나19의 예방 수칙 이행 및 코로나19 안전무시행태에 대한 안전신문고를 당부했다. 또 지진관련 리플릿 및 재난대응 상시훈련 홍보용품도 함께 배부해 군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코로나19가 전파된 이후 일일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

는 심각한 상황에 따라 장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및 단체 활동 금지 등 개인의 노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인 만큼 군민들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예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예방 활동 및 관리 감독으로 청정장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제외됐던 장수군(기존 1.5단계)은 2단계로 격상하고 장수형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회의 개최

신청·지급 21~31일까지 가능

진안군은 15일 상황실에서 전준성 군수 주재로 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에 따른 회의를 열고 실과소, 읍·면 종합행정담당과 협력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마을로 찾아가 지급하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 14일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5억 5,600만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지급일 현재까지 진안군에 주소를 유지하는 모든 군민

은(결혼이민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모두에게 진안사랑 선불카드 10만원씩을 지급하며, 2021년 2월 28일까지 진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은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2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마을별로 찾아가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 등 사유로 평일에 시간이 나지 않는 군민을 위해 28일부터 27일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열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담당 마을 직원이 출동하여 지급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행렬에 동참하고자 신청 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 선택 가능하여

따뜻한 선행에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14일 기준)은 진안군을 포함해 인천·웅진군과 전남 강진군까지 3곳뿐이다.

전준성 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 수칙 준수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진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회생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단 한 명의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겨울철 화상병 유입 차단 현장 지도 강화

반딧불사과의 고장 무주군이 최고 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현장 지도는 최근 충북과 경기, 충남, 강원도에 이어 전북지역까지 확산 추세에 있는 겨울철 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도사들은 현장에서 ▲묘목과 전정 도구를 통한 전파 사례들을 알리고 ▲유입 차단을 위한 방법과 ▲작업도구 및 작업복, 장갑, 신발 등의 소독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해 현장 지도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농가들에게도 농한기 동안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말게 말라 죽는 모습이 마치 화상병인 화상병에 일단 감염이 된 과수원은 3년간 재식재가 불가능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화상병 첫 감염사례는 2015년

경기도에서 나왔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5개도 14개 시·군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돼 경각심을 주고 있다.

무주군은 빈틈없는 방역 망 구축을 위해 내년 3월 전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들은 “화상병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린다”며 “1년 농사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감염이 되면 몇 년간 후유증을 앓아야 하니 현장에서 배우고 들은 대로 조심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모자보건사업 기관표창 수상

장수군이 2020년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전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지원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비대면(언택트) 산전관리 추진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모신

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도록 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 선정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을 선정 표창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군 선정

진안군은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특별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강제납부 조치를 이행, 징수 불능자 1,200여건 2,700여만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11월말 기준 징수

율 84%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세입으로서 경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 2회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을 말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이나 사업자에 환경 개선사업비의 용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을 비롯해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태권도진흥재단 15일부터 태권도원 휴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15일부터 태권도원을 휴원 한다.

이번 휴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태권도원 방문객 안전 등을 위해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태권도원 상설 시범공연 및 시설·프로그램 중단 등 태권도원 입장과 이용이 불가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태권도원 휴원 종료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권도원을 휴원 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진안군은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451건, 8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산계좌 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